

'디 엘더스' 북한 핵긴장에 강력한 다자 대응 촉구

2017년 9월 21일, 런던

오늘 원로 자문 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는 미국과 북한의 리더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적이고 냉정한 방식으로 핵긴장 해소에 나서, 더 이상의 사태 악화와 위태로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 엘더스는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과격한 발언은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디 엘더스는 강력한 다자 대응만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디 엘더스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또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디 엘더스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코피 아난 디 엘더스 의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한반도는 현재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있다. 현 사태는 핵무기가 유발한 광범위한 위험과 불안정성을 명백히 나타내며, 핵무기 보유국이 군비 축소를 더욱 꺼림으로써 악화되었다."

디 엘더스는 국제 사회가 북한 정부와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국제 사회가 남한과 북한 및 한반도의 긴장감 고조로 우려가 큰 다른 국가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구축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디 엘더스는 강조했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 디 엘더스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1년 디 엘더스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후, 북한과의 대화는 가능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성에도 대화가 필수적임을 확신했다. 북한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으며, 지탄받는 것이 당연하다. 단, 북한 정부가 추구해 온 위험한 노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조성하려는 신뢰할 만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가 취하는 어떠한 제재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